

옛 도지사 관사, 지금은 ‘문화사랑방’

하안양옥집 1주년
홈퍼밍데이 개최
김 지사·예술인
도민 등이 함께해

하안 답장을 따라 갔던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 잔잔한 바이올린 선율이 경기전의 고요한 시간 위에 내려앉는다.

한옥과 양옥,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전주 한옥마을 골목 어귀에서, ‘하안양옥집’은 지난 1년간 누구보다 뜨겁게 예술을 품고, 조용히 도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곳은 더 이상 누군가의 관사가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가 피어나는 문화의 집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하안양옥집 개관 1주년을 기념해 ‘홈퍼밍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주시 한옥마을 안쪽, 옛 관사 자리에서 열렸으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시에 참여한 예술인과 도민, 문화관광재단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함께하며 문화와 시간이 녹아있는 공간에서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하안양옥집은 1995년 민선 1기인 유종근 지사부터 2022년 민선 7기 송하진 지사에 이르기까지 27년 동안 역대 도지사들의 거처였다. 2022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김관영 도지사는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은 2024년 5월 21일 문화공간의 문을 열며 현실이 됐다. 그 이후로 이곳은 ‘누구든 예술가가 될 수 있는



1일 전주시 한옥마을 안쪽, 옛 관사 자리에서 열린 하안양옥집 개관 1주년 ‘홈퍼밍데이’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시에 참여한 예술인과 도민, 문화관광재단 관계자 등이 함께하고 있다.

집’, ‘모두의 기억을 담은 공간’으로 살아 숨 쉬어왔다.

가장 눈부셨던 순간들은 거창한 무대나 유명인의 출연이 아니었다. 완주 고산 화정마을 할머니가 그린 꽃그림, 고사리손 어린이의 그림일기, 생애 처음으로 무대에 선 청년 예술인의 연주, 그 순간들이 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SNS에는 ‘우리 엄마 전시 중’, ‘내 아이 작품, 하안양옥집에 걸렸어요’ 같은 해시태그가 쏟아졌다.

문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서 피어나는 소박한 감동임을 증명해 왔다.

전북자치도는 그간 참여해 온 도민 예술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시의 의

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하안양옥집이 걸어갈 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 취임 3주년과 공간 개관 1주년이 맞물리며, ‘관사에서 문화공간으로’라는 전환이 단순한 건물 리모델링이 아닌 전북자치도의 문화 철학을 반영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하안양옥집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전북이 추진하는 ‘문화올림픽’의 미증물이자, 일상의 예술이 흐르는 실험장이 되고 있다. 문화와 관광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 공간은 해마다 새로운 이야기와 예술로 도민을 맞이하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발달장애 예술인의

감성을 담은 회화작품 전시 ‘갈을 수도, 다를 수도 있지’가 36일간 펼쳐진다. 이 밖에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전, 일본 가나자와 전통공예 교류전, 인구소멸 지역 주민 작품전 등 사람의 삶과 기억을 담은 전시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하안양옥집’은 도민과 맺은 약속이자, 문화가 일상이 되고 예술이 공유되는 상징”이라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참여가 전북의 문화올림픽을 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안양옥집에는 개소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8만 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만호 기자

“민생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 추경 신속 처리 강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 선출된 뒤 첫 메시지로 민생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국민께 처음 인사드립니다”며 “오늘부터 예결위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내내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렵고, 무엇보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30년 된 마트, 40년 넘긴 목욕탕, 50년을 지켜온 약국까지 문을 닫고 있다”며 “국민은 하루하루가 숨 막히고 죽을 것 같다고 절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절박한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있는 한 예산 심사의 시계



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번 추경이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되도록 꼼꼼하고도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민생을 살피고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을 중심으로 서민·취약계층 지원, 경기 부양 대책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산촌진흥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이정린 의원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산촌진흥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낙후된 산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산촌지역의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지원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촌진흥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산촌진흥지역에서 특화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하고, 승인한 경우 사업계획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해 추진을 돕도록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통무예 진흥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임종명 의원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종명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는 체육 종목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으로 체계적인 진흥과 세대간 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무예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정책적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지도자 양성지원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尹정권서 삭감된 학교예술강사 수당 증액

민주 김운덕 사무총장 요구 추경 예산안, 국회 문체위 통과
예결위 원안 통과시 예술강사 처우개선·예술교육 기회 늘어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 등도 포함돼... 민생회복 마중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운덕 의원(전주갑)이 요구한 추경 예산안이 지난 1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 의원이 요구한 추경안은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사업집행으로 무너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민생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예산안 것으로 알려졌다.

김운덕 의원은 특히 강조했던 학교 예술강사 수당 117억원 증액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동시에 윤석열 정권이 무도하게 삭감을 자행해 학교예술강사들의 삶이 무너진데 따른 매우 시급한 예산이었다. 김운덕 의원의 추경안이 추후 국회 예결위로 넘어가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수업시수 확대를 통한 예술강사의 처우개선과 초·중고 학생들의 보편적 예술교육의 기



회가 대폭 늘어 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운덕 의원은 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공사비 부족에 시달려 완공 여부가 불투명했던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 예산도 50억원을 추경 편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운덕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추경 요구 예산 50억원도 통과했다. 이 예산은 경기침체로 운영이 어려운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총 9개 업종 소상공인들의 음악저작권 공

연사용료를 사용하도록하는 예산 5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7년간 동결되었던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의 인건비를 인상하도록 한 추경 요구 예산안 2억원도 문체위를 통과했다.

김운덕 의원은 “토양환경 안정성 분석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편성했던 용산 어린이공원 조성, 그리고 용산 대통령직무수실 이전으로 청와대 관람화가 진행되며 낭비되었던 막대한 예산으로 정작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들이 감액 및 동결되고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 지역 예산들을 요구하였고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만큼 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까지 잘 통과되도록하여 서민의 눈물과 피해해지는 지역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도내 우수 소비재 제품 일본 시장 진출 지원 본격

경진원, 2~4일 개최 ‘일본 라이프스타일 위크’ 전시회 참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특성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2일부터 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5 일본 도쿄 라이프스타일 위크(Lifestyle Week Tokyo)’ 전시회에 참가해 도내 우수 소비재 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해당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며, 2025년 일본 시장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사절단 1회, 해외전시회 1회 등 총 2회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그중 하나로, 일본 현지 시장에 전북 기업의 우수 제품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핵심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국 스페셜 스테이지(Korea Special Stage)’가 특별 기획되어 개최되며, 전북관은 해당 특별관 입점 위치

에 전시 부스를 확보하여 관람객 유입 및 홍보 효과 면에서 높은 주목이 기대된다.

전북자치도에서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 10개사가 참가하며, 생활소비재 분야 5개사, 헬스&뷰티 분야 5개사로 구성되었다. 각 기업은 친환경 생활용품, 천연 원료 기반 뷰티제품 등 일본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관 참가기업 중 네오를, 대성메디칼, 새롬 3개사는 전시 주최사가 주관하는 특별 프로그램인 ‘DISCOVER KOREA AWARDS’에 참가해 제품 경쟁력을 평가받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라이프스타일 위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소비재 전문 전시회로, 매년 5만 명 이상의 글로벌 바이어와 유통

관계자가 참가한다. 특히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경진원은 참가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해 현지 전문 바이어를 사전 섭외하고 1:1 수출상담회를 운영하는 한편, 통역 지원 및 사후 바이어 교섭을 위한 전문가 연계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여봉 경진원 원장은 “전북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수출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는 단순 참가를 넘어 한일 교류의 의미를 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자립길

“위안부 피해자 사후 시대 준비 명예 회복·진상규명 이어가야”

민주 박희승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법제사법위원회)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제치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법에 추가하였으며, △관련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기념사



업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품을 보관할 수장고가 포화상태이고, 기록을 목록화할 인력의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2025년 5월 12일 기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에 불과하다.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박희승 의원은 “기억의 상실과 단절은 피해자에겐 또 다른 아픔이다. 다가올 피해자 사후 시대를 대비해 각종 기념사업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 기억계승으로 역사 왜곡을 막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중고가전·가구 등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포함

민주 신영대 의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날 30일,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품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



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고시장 전반에 대한 실질적 세제지원과 제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